

3/10/19

설교 제목: 유다인의 완전한 승리와 안식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에스더 9 장 17 절 10 장 3 절

- (에 9:17) ○아달월 십삼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십사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 (에 9:18)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였고 십오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 (에 9:19) 그러므로 시골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십사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절관주** 느 8:10, 계 11:10
- (에 9:20)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 (에 9:21)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지키라
- (에 9:22) 이 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 (에 9:23) 유대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개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 (에 9:24)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 (에 9:25)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 (에 9:26)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 (에 9:27)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 (에 9:28)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대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 (에 9:29)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 (에 9:30)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백이십칠 지방에 있는 유대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 (에 9:31)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절관주** 시 137:1-9, 에 4:16
- (에 9:32)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 (에 10:1)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 (에 10:2)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 (에 10:3)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절관주** 느 2:10

에스더서 마지막 장입니다.

유대 민족은 민족 멸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위대한 승리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 그리고 온 민족이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쳐 이루어낸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유대 민족이 대적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렸을 때 눈에 띄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대적들과 싸울 때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 대적들을 다 죽게 한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돌게 해서 대적들을 다 죽게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유대인들은 이 승리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만과 도취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모르드개는 유대 민족에게 그들이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절대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르드개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후대까지 영원히 잊지 않도록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해 지켜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에 9:17) 아달월 십삼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십사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에 9:18)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였고 십오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에 9:19) 그러므로 시골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십사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수산 성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제외한 바사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아달월 십삼일 대적들을 다 멸절시킨 후 다음 날인 십사 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수산 성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에스더의 추가적인 요청으로 하루 더 대적들을 도륙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보다 하루 늦은 십오 일 승리 축하 잔치를 거행하였습니다.

모르드개는 이 일을 문서로 기록하여 바사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이 날 즉 아달월 십 사일과 십 오일을 해마다 기념하도록 규례를 세워 지키라고 했습니다.

(에 9:20)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에 9:21)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지키라

(에 9:22) 이 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모르드개가 이렇게 이 날을 규례로 정해 해마다 기념하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영원히 기억되어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글에서 이 달 이 날에 유대인은 비로소 평안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평안’이란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함으로써 그들의 안식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70 년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곳 바사에 남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 거기서 70 년을 살고 이제는 바사 고레스 왕의 조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바사에서 이루어 놓은 생활 기반을 접지 못해 스룹바벨이 이끄는 1 차 포로 귀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가슴 속에는 말 못하는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한 구석에는 예루살렘에 돌아가 폐허가 되어버린 조국 예루살렘을 복구해야 함에도 그동안 이곳에서 이루어 놓은 알량한 생활 기반에 연연하여 이곳에 남아 살고 있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진정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실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던 차에 이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것을 여전히 당신의 자녀로 여기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고 계시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순간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선민이라는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슴은 슬픔과 애통을 벗어 버리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 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각성하고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신앙 개혁과 성벽 재건을 주도했습니다.

결국 이 일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한 2 차 3 차 포로 귀환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전권으로 부림절 제정과 준수에 관한 두 번째 글을 써서 전국 각도와 읍에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유대인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또는 모르드개가 첫 번째 글에서 말한대로 규례로 지켜 행하고 있었습니다.

(에 9:23) 유대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개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 9:24)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 (에 9:25)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 (에 9:26)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 (에 9:27)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 (에 9:28)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대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 (에 9:29)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 (에 9:30)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백이십칠 지방에 있는 유대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 (에 9:31) 정한 기간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 (에 9:32)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두 번씩이나 글을 써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유대 민족 구원 사역을 자손 만대에 기리는 일에 일말의 부족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전 유대 민족은 아달월 십사 일과 십오 일 양일을 부림절로 정하고 유대 최대 명절로 지켰습니다.

부림이란 바사어로 '제비'라는 뜻입니다.

고대 서아시아에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길일을 제비로 뽑아 정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만도 유다인을 멸절시키려는 중요한 거사를 앞두고 D-Day 를 제비를 뽑았고 '부르'에 의하여 그 날을 아달월 13 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는 잠언 16 장 33 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잡은 그 날이 도리어 하만 자신과 자신의 열 아들 그리고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멸절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0 장은 유대인의 완전한 승리 이후의 안식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에 10:1) 아하수어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하수어로 왕이 본토와 지방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말은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아하수어로 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강성함을 누렸음을 뜻합니다.

(에 10:2)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에 10:3)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어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르드개는 아하수어로 왕 다음가는 2 인자가 되어서 온 유대 민족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였고 모든 이방 종족들에게 안위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정된 부림절(Purim)은 유대인들이 하누카(Hanukkah)와 함께 가장 즐거운 축제 절기로 오늘 날까지 지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날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하만의 귀라고 불리는 과자를 먹으며 화려한 퍼레이드와 가면 무도회 등을 열어 축제를 즐깁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한 번 택한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죄책감으로 인해 성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자신이 너무나 많고 큰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이 받아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죄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히려 큰 죄인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의 나라 개건에 함께 하지 못해 마음에 한 구석에 죄책감을 느끼고 성큼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했던 바사에 남아있던 유다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선뜻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먼 발치에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 앞에 성큼 나아와 와락 껴안기는 그 날을 학수고대 하고 계십니다.

(사 55: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사 55: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 55: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처절한 싸움 끝에 완전한 승리를 이룬 유다인들이 안식을 얻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의 처절한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한 후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승리는 보장되어 있느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승리를 거머진 자들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험난한 오늘을 견디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살다가 유다인들과 같이 크리스찬의 삶을 일탈한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고 성큼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영원한 안식을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